동향 110822-03	외신동향

2011.08.22 미래정책연구실

❑ USDA, 폭염과 가뭄으로 곡물 수확량 하향 전망

1. FINANCIAL TIMES(2011.08.11) 주요 내용

❍ **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올해 미국 곡물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발표 이후 식량가격이 급등함.**

- 이날 CBOT에서는 옥수수 거래가격이 급등함. 12월 인도분이 전일대비 0.3% 증가한 1부셸에 7.16달러에 거래됨.

- 미국은 주요 곡물 수출국으로 이번 전망은 국제 곡물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.

❍ USDA는 지난 7월의 이상 고온과 강수량 부족으로 미국 중부의 옥수수 생산지역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함.

- 올초 **옥수수** 생산량은 에이커당 158.7부셸로 전망되었지만,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당초 예상치보다 3.5% 감소한 153부셸로 하향 조정됨.

- 또한 **밀과 대두**의 생산량과 재고량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.

- 미국 농산물시장 조사업체인 애그리소스(AgResource)의 댄 배시(Dan Basse)는 “상당한 기간 동안 옥수수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”라고 주장함.

❍ 곡물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농기구 제조업체인 디어앤드컴퍼니(Deere&Company), 곡물 무역업체인 ADM(Archer Daniels Midland)와 벙기(Bunge), 비료 생산업체인 포타쉬 코프(Potash Crop)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함.

❍ **그러나 옥수수 가격상승은 쇠고기, 돼지고기 등의 육류와 가금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애그플레이션(Agflation)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.**

- 이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정책선택의 여지를 줄일 가능성이 있으며, 중국, 인도 등 신흥경제국가들은 식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.

❍ 반면 미국은 에탄올 산업에 상당한 양의 옥수수가 소비되고 있어, 모건 스탠리(Mogan Stanley)의 애널리스트인 후세인 알리디나(Hussein Allidina)는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“(옥수수)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”고 주장함.

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